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 ‘교양강의 수강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 교양강의 선택 동기와 기준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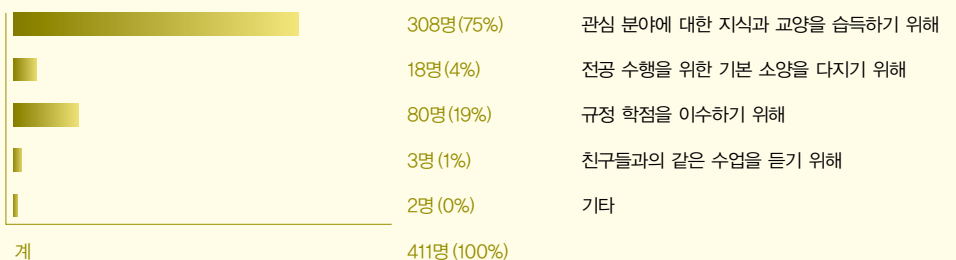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대부분 전공 외 관심분야에 대한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양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양강의를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8명(74.9%)이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라고 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중 80명(19.5%)이 (어떤 면에서는 상반된 응답으로 생각되는) ‘규정학점을 이수하기 위해’를 꼽은 것이라는 답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능동적으로 찾아 수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기보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편중된 강의 주제를 골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강 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교양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응답자 중 309명(75.2%)이 ‘강의 주제’를 꼽았다. 이는 ‘담당교수 인지도/평판’에 42명(10.2%), ‘강의 진행 방식’에 27명(6.6%),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에 23명(5.6%)에 대한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결국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아야 수업을 들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220명(53.5%)이 강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 ‘강의계획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강의계획서의 낮은 등록률과 빈약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어느 정도 신뢰해 참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강의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지성」 제2호 <교수칼럼>의 ‘수강신청문화와 교수의 역할’에서 신의항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수강지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체계적인 대학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성과 교수들의 성실한 학사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102명(24.8%)은 ‘학내매체’, 87명(21.2%)은 ‘선배/동기들의 입소문’을 강의정보 파악 수단이라고 응답했다.

#### ① 교양강의를 선택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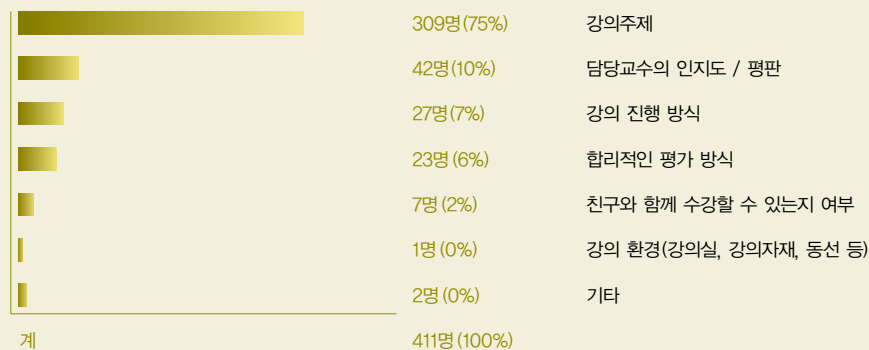
「열린지성」 3호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의 수강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중앙전산원 설문조사 시스템(<http://isurvey.snu.ac.kr>)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11명이 참여했다.

(1학년 109명(26.5%), 2학년 102명(24.8%), 3학년 111명(27%), 4학년 89명(21.7%))

이 설문조사는 최근 기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부대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생의 교양강의 수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참여자 신상 정보와 기타 의견 항목을 제외하고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양강의 선택 동기 및 기준 △일반교양과 핵심교양에 대한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 ② 교양강의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③ 교양강의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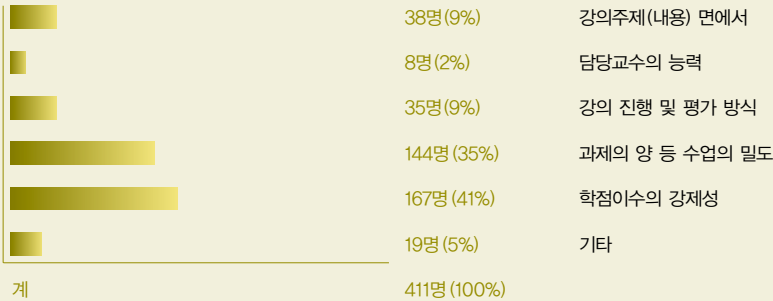


## 일반교양과 핵심교양에 대한 설문

핵심교양이 ‘강의 주제 면에서’ 일반교양과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은 38명(9.3%)에 불과했다. 그리고 핵심교양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강의 주제의 다양화’를 꼽은 응답자는 101명(24.6%)에 달했다. 이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핵심적 지식의 기본 틀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학문 연계적인 주제를 다루도록 기획된 핵심교양 강의가 개론 위주의 일반교양 강의와 차별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지적 관심영역을 핵심교양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응답자의 167명(40.6%)과 144명(35.0%)이 각각 '학점 이수의 강제성' 과 '과제의 양 등 수업의 밀도' 를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간의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과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핵심교양 4개 분야(문학과 예술/역사와 철학/사회와 이념/자연의 이해) 중 3개 분야에 걸쳐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초교육원은 핵심교양의 경우 강좌마다 강의조교를 배정해 글쓰기를 지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기초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 교양 운영 방침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예로 풀이할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핵심교양' 과 '일반교양' 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⑤ '핵심교양' 의 규정학점을 모두 채운 후에도 '핵심교양' 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핵심교양' 과 강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문조사 결과, 의무학점을 초과한 후에도 핵심교양 강의를 수강할 의향이 있는 학생 수는 183명(44.5%)로 수강할 의향이 없는 학생 수인 228명(55.5%)보다 적었다. 또 핵심교양 강의의 개선 사항으로 112명(27.3%)의 학생이 '규정 학점제 폐지' 를, 92명(22.4%)은 '과제 및 수업 부담의 조정' 을 꼽았다. 학생들에게 일차적으로 강제적 규정을 들이대기 보다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지적 자극과 흥미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강의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대체로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 교양강의를 선택하지만 핵심교양의 경우 의무학점 규정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좀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관심분야에 대한 기초 소양을 기르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글 / 이경일